

일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윤*미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파리
파견대학	American Business School	파견기간	2015. 08 ~ 2016. 05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American Business School 은 파리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합니다. 파리 시내와 외곽에 두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은 파리 시내에서 진행됩니다.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캠퍼스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페테리아 도서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캠퍼스 건물 내는 활발한 분위기 입니다.
수업	프랑스의 내의 대학이나 미국식 학교인 만큼 불어 중급 이상의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수업 내용은 수업마다 다르지만 한국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보다 비교적 쉽게 느껴졌으며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교 학생보다 교환학생 수가 많은 특성상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과제는 교수님마다 다르지만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 좋은 성적을 주십니다.
프로그램 운영	<p>교환학생이 절반 이상인 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인 편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3일에 걸쳐 와인 치즈 파티와 바토무슈 체험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파리에서 생활할 때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며 오리엔테이션 파티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p> <p>외국인 학생들 관리 부서는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생활이나 수업을 듣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이 메일 등으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학교 내 보안도 철저합니다.</p> <p>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 내에서 하는 클럽파티 이외에도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언어와 문화를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한국과 비교했을 때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덜 춥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덥고 추움으로 계절에 따라 옷을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p> <p>일출과 일몰 시간이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름에는 밤 11시에 해가 지고 겨울에는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집니다.</p>
안전	<p>작년 파리 테러 사건 이후 군인과 경찰들이 많이 이곳 저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상 생활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p> <p>단지, 어디에서나 그러하듯, 자신의 물건은 잘 챙기고, 너무 짧은 하의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인이 소매치기와 같은 자잘한 범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p> <p>그 이외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p>
숙소	<p>학교 자체 기숙사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에이전트를 통하여 집을 구해주는 형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홈 스테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일반적으로 국제 기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렴하면서 프랑스 국가에서 나오는 주택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한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파리에 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p> <p>저의 경우에는 같이 파리로 가는 순천향대 학생들과 방을 나누어 썼습니다. 학교의 도움 없이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구하였으며 절차가 꽤 까다로웠습니다. 프랑스는 어떤 일이든 서류로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학교에 카페테리아가 있으나 간단한 음식만 파는 정도 입니다. 학교 앞에 음식점이 있어서 음식은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p> <p>저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사먹는 것에 비해서 직접 해먹는 것이 저렴하고 좋았습니다.</p> <p>한국 마트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한식이 그리우면 어떤 음식이든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p>

교통	<p>저는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꼭 가자마자 교통카드 먼저 만드세요! 한달, 일주일 단위로 충전해서 쓰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1존부터 5존까지 교통카드(나비고)만 있으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p> <p>학교 갈 때, 공항 갈 때, 근교로 여행갈 때 모두 유용하게 썼습니다.</p> <p>버스, 나이트 버스도 타고 트램도 교통카드로 모두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400,000원 (왕복)	참고) 최근 항공사의 프로모션이 많이 나와서 저렴하게 가면 백만원 이하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Fees	-	-
보험료	360,000원 300유로 (약420,000원) <hr/> 총 약 780,000원 (1년간)	파리로 가시면 보험 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보험 들으셨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한국 보험이 더 저렴합니다. 집을 빌리신 경우에는 프랑스 집 보험을 따로 사야 합니다. (은행 계좌 만들 때 필요합니다) 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더 저렴하게도 가능 합니다.
숙소	월 550유로 (약 6,160,000원)	주택 보조금은 집마다 크기마다 다르게 나옴으로 그 금액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00 ~ 200 유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비싼 지역에 집을 얻었습니다. 기숙사는 훨씬 쌉니다.
식비	월 100유로 (약 1,120,000원)	
교통비	월 70유로 (약 784,000원)	나비고 사용
책값	100유로 (1400*100= 140,000원)	중고 책으로 싸게 구매하였습니다.
여행	약 4,000,000원	18개국 21도시, 여행경비 포함
합계	약 14,384,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짐 너무 많이 싸지 마세요. 라면도 한국보다 여기가 더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샴푸도 린스도 다 있고 로션도 여기서 사서 쓰는 게 좋아요. 프랑스가 화장품이 유명해서 좋아요.

정말 필요한 옷, 화장품만 가져오셔도 돼요! 짐 넘치면 돈 많이 드니까 겨울 옷도 택배 찬스 한번 쓰시면 될 거예요!

옷걸이도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필기구도 여기서 사세요, 노트도요!

밥술 같은 것들도 '프랑스존'에서 교환학생들이 쓰고 팔려고 올려둔 중고 물품들이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그걸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 책 한두 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할 때나 비행기에서 한글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학생비자로 알바 할 수 있습니다. 붙어 못해도 한인마트에서 할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알아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프랑스 파리에에서의 두 학기 동안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과 후의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학교 수업도 한국과 많이 달라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적응했고 모든 수업에 만족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수업은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스피치가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많이 떨었던 한 학기 후에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가장 놀랐던 수업입니다.

영어도 이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자마자 영어 스피킹 시험들을 바로 쪽 봤는데 얼마나 많이 영어가 늘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제 일생에 할 모든 여행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런던에서 본 뮤지컬 8편 그 때마다 적어둔 소감, 여기저기서 찍은 사진들, 독일 최대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 원산지 더블린에서 마신 기네스와 암스테르담의 하이네켄,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 투어까지 어떤 것 하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친구들, 아직까지 많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때의 추억을 같이 회상하기도 하고, 서로 국가에 방문하기로 많은 계획도 세웠습니다. 학교에서의 축제도 친구들이랑 늘 함께였고, 집에서 직접 열어본 하우스 파티도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대학생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딘가 더 성숙해짐을 느꼈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대학 생활에 어떤 미련도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학생활을 멋지게 보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학교에 정말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주체/ 신입생, 교환학생 놀이공원 감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



학교(ABS) 근처 공원/ 피크닉하는 사람들



프랑스 친구와 베르사유 궁전



중국인 친구와 파리 디즈니 랜드



학교 친구들 초대해서 연 하우스 파티